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재민



보통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의도가 정말로 진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많이, 가장 고상하게 표현하는 말이 '진정성'이다.

의 말을 세 번이나 했다고 한다. 예수님이 가장 신임했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로마군에 잡혀가 죽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반석이 되었다. 이는 인간이기에 거짓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거짓말 자체보다는 이를 계기로 스스로 반성하고 더욱 성숙되고 진실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계시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관계에서 한두 번의 거짓은 큰 문제없이 치유되기도 하지만, 공적인 관계에서의 진정성 결여는 관련되는 대상이 광범위하여 비록 단 한 번일지라도 그 파장은 크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한두 번의 거짓은 큰 문제없이 치유되기도 하지만, 공적인 관계에서의 진정성 결여는 관련되는 대상이 광범위하여 비록 단 한 번일지라도 그 파장은 크다.

필 수 있다. 필자는 얼마 전까지 고향 광주에서 부교육감직을 수행했다. 지금에 와서 그때 나는 과연 공적인 일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뒤돌아본다.

는 않았는지. 가난한 학생과 오지 학생,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신론 방송에서 정치인들끼리 우리 주장은 옳고 상대방 주장은 그르다며 서로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본다.

를 수행하는 교육계마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성장할까 하는 걱정으로 가슴이 죄어온다.

모든 공적인 일이 관련되는 집단과 사람에게 만족과 이익만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아들과 딸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교육계 모두가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의 본질만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고장 광주에서 교육의 진정성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광주만의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선 광주교육이 자랑스런 광주교육의 전통을 지키고 우리 광주가 살맛나고 행복한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주 교육가족 모두가 내 편 네 편이 없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협력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솔선해야 할 것이다.

(순천향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이영창



필자는 얼마 전 고등학교 동문회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부터 그의 지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되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무죄추정은 단지 재판단계에서 입증책임을 정하는 절차적 원칙에 불과하고 재판 전 구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관리에 해당한다고 하며, 피의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의 필요가 충분히 이를 능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체포·구속과 차이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체포·구속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단계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이 검찰 측에 있다는 것을 정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대화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입증 수준이 유죄판결을 받을 정도까지 요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체포·구속을 형벌로 취급하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체포·구속할 것으로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기도 한다.

친구의 지인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 해당되어 구속되었을 뿐이고 구속되었다고 해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그에 대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찰 측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체포·구속이 공익을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허용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로서 최근 구속영장재청구, 구속 취소, 기소여부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검사의 중요결정을 심사하게 하는 등 지금까지 체포·구속 속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왔고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혀 준다.

동문회에서 소주를 기울이며 친구에게 한 잔씩 부끄러워 문헌 등을 참조하여 이 자리를 빌렸는데 어느 정도 대안이 되었는지 걱정이 앞선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고

정용화



광주상공회의소 등 지역자본의 광주은행 인수 노력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자 역시 지난 7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리 매각 방침 발표 이후 광주은행의 향후은행화를 청와대와 정부 등 여러 요인에 적극 주장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역 상공인 컨소시엄이 공개경쟁 입찰에서 당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향후은행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개 경쟁입찰시 가격우위를 자신

인수의 적합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선 지역자본 인수가 되지 않으면 보이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GDP의 80% 이상을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개방형 글로벌 경제 속의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수용되기 힘들다.

둘째 지역자본에 의한 인수시 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를 마련, 타당성있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배구조는 자본구성의 바람직한 구조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선출, 이사회 운영,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기반한 전문경영체제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이는 법을 준수하

광주은행 지역자본 민영화 성공을 위한 길

할 수 없는 게 지역 컨소시엄의 솔직한 고민이다.

따라서 광주은행의 지역자본에 의한 인수 성공을 위해선 정치·경제적인 상황, 글로벌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리를 개발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광주·전남이라는 지역적 시각과 정부의 국정 운영 관점 등을 동시에 고려하고, 정치·경제적 논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최적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지역자본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는 데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을 생각해 보자.

먼저 인수 희망 주체들은 '광주은행이 왜 지역자본에 의한 향후은행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나 여론조성 등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에서도

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언약이나 주주간 협약 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의 국내 금융권의 상황을 보더라도 인적요인과 지배구조에 의한 기업가치 상실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용 증진기반에서 최고의 금융인을 키우고 육성하여 지역기반 향후은행에서 감수 글로벌 은행을 지향하는 비전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광주은행 인수에 나서고 있는 몇몇의 상공인들을 만나본 결과 인수에 필요한 치밀한 논리와 전략이 다소 우려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정서적 호소와 당위성, 단순한 인수 합병(M&A)전략에 의존해서는 표준화된 매각 절차로 가고 싶어하는 금융당국자들을 광주·전남의 눈으로 끌고 오기가 어렵다.

(전 청와대 비서관·정치학 박사)

술 취해 경찰서 지구대서 행패 엄청하게 처벌해야

얼마 전 초행길 운전중에 길을 잃어버려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갔다. 그런데 술에 취한 두 명이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경찰관들 술에 취한 사람들을 말리면서 가만히 있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취객은 경찰의 제지에도 이렇듯하지 않은 채 더욱 거칠게 행패를 부리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했다.

경찰서 지구대는 대민 창구로서 치안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술에 취한 사람들

의 행패를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삼승적으로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보호하겠는가.

물론 어저대 술에 취해 한번쯤 실수하는 것은 이해하고 선처를 베풀 수도 있다. 하지만 삼승적이고 고의적인 행패와 업무방해 행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엄청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김요원·광주시 북구 문흥2동

시설

광주 대형마트 포화 상태 이대로 둘 건가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포화상태라고 한다. 광주 시의회 전주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광주지역에는 대형마트 14개, SSM 16개로, 인구 4만7000여 명당 1개꼴이다. 점포 1곳당 인구 수가 10만 명 이하면 '밀집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광주는 그 2배가 넘는 셈이다.

특히 광주 동구와 서구는 대형마트만 점포 1개당 인구 수가 각각 5만3886명, 7만2956명으로 전국 230개 시·군·구 중 8위와 27위를 차지했다. 광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대형유통업체가 얼마나 많이 진출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광주의 대형유통업체는 이같은 포화 상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5곳에서 SSM 추가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은 우회 입점, 가맹점 등 형태로 개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 지방 유통상권마저에 씩씩이할 모양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지방 진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자가 엄청난 자본과 영업력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와 맞선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자본주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시민·지역경제보다 앞설 수는 없다. 따라서 여야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SSM 규제관련법안을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

광주시 등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의지도 필요하다. 대형유통업체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 상생하고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남시문자' 피해 160만명... 당국은 뭘 했나

사상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범인이 30명에, 이들이 편취한 액수가 5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만 무려 160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멀티메시지(MMS)를 보내 결제대금을 챙기는 수법을 써왔다. 이들은 "미확인 포도 메일이 있습니다" "수신된 멀티 메시지가 있습니다"라는 소위 '남시 문자'를 보내 수신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뒤 유료서비스를 통해 요금을 뜯어냈다.

이들의 범행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던 것은 3천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사용자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악용한 데 있었다.

지(MMS)를 보낸 것처럼 유도해 사용자 자신도 모르게 2천990원의 정보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의가 우선이다. 먼저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본인의 동의 없는 결제를 차단하거나 금액을 0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매매하다고 느끼는 MMS는 가급적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령 MMS를 확인했다더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이동통신사에 결제 취소 요청을 하면 무조건 요금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센터나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민원 사이트에 신고해 적극적으로 환불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당국의 제도적, 법적 장치도 급선무다. 불법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물론이고, 본인의 인증 절차 없이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기원전 5세기 무렵 오리엔트 전역에 장악한 페르시아 제국은 경제적으로 번성하던 서쪽 에게해 일대로 눈을 돌렸다. 다리우스 1세는 BC 490년 수심만의 원정군을 보내 에레트리아를 함락시키고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 상륙했다.

아테네군의 밀티아데스 장군은 1만 명의 중무장 보병군단을 이끌고 평원이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포진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좌우 양날개에 정예부대를 배치하고 페르시아군을 협공했다. 결과는 대승이었다. 그는 전령에게 승전보를 한시라도 빨리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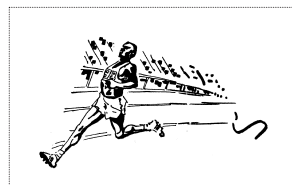
전령은 아테네까지 100리가 넘는 길을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렸다.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자마자 쓰러져 숨을 거뒀다. '올림피의 꽃'으로 불리는 마라톤이 탄생하게 된 고사다. 흥미로운 것은 페르시아의 후예 이란에선 지금도 마라톤을 금기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마라톤 경기의 공식 거리는 42.

195km다. 이는 마라톤의 유래와는 관계가 없고 1908년 런던올림픽에서 처음 채택됐다. 당초 코스는 윈저궁을 출발, 올림피스타디움까지 42km였는데 영국 왕실에서 발코니에서 관전하고 싶다고 해 출발점을 옮기면서 바뀌었다는 것이다.

'마라톤 전투'에서 출발한 마라톤이 올해로 2500주년을 맞았다. 지난날 31일 아테네 마라톤은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러졌다. 국내에서도 같은 날 화순 고인돌마라톤을 비롯 5개의 대회가 열렸고, 연간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만 500개가 넘었다. 100km가 넘는 '울트라 마라톤'을 통해 새로운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다.

마라톤 인생



'달리는 인간'이 늘어나는 것은 인생 역정이 마라톤 레이스와 비슷한 점이 많은 탓일 게다. 긴 여정 속에 철저한 준비와 페이스 조절은 필수적이다. 고통의 순간에도, 환희의 순간에도 인내와 끈기가 완주하는 게 속명 아니겠는가.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제11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제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